인문연구 제95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5, No. 1, pp.71~97
http://dx.doi.org/10.21211/JHUM.95.3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연결성과 팬데믹: 역병 플롯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홍은숙*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아테네 제국의 역병 인식
3. 역병 플롯과 내러티브
  1) 제국의 욕망과 오이디푸스의 욕망
  2) 스핑크스의 질문과 자기 반성적 성찰
  3) 토템과 타부의 내러티브
  4) 비난의 메커니즘과 희생양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하나의 연결망으로서의 제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국의 현상 혹은 제국의 징후로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의 플롯과 내러티브를 분석한다. 아테네 역병은 비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부교수

극작가들의 예술 언어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써 예술의 치료적 효과가 강조되었다. 역병 절정기에 디오니소스 극장은 '질병 상상계'의 우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오이디푸스 왕』은 역병에 대한 광범위한 설정과 상세 사항으로 구성되고 전개된다.

『오이디푸스 왕』의 플롯과 내러티브는 1) 제국의 욕망과 오이디푸스의 욕망, 2) 스핑크스의 질문과 자기 반성적 성찰, 3) 토템과 타부의 내러티브, 4) 비난의 메커니즘과 희생양의 측면에서 전개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효용성을 연민과 공포를 통한 카타르시스(정화, 치료)라고 하였듯이,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의 치료는 더러움을 찾아 제거하는 정화에 있다. 이때의 정화는 공중보건적 정화가 아니라 정치적 정화이다. 테베 시민들은 오염 덩어리를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는 책무를 정치 리더십 오이디푸스에게 맡긴다.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아테네는 제국의 교류와 번영으로 자신감이 충만했고,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감과 자신감이 넘치는 자제할 줄 모르는 제국이었다. 하지만, 제국의 연결성으로 인해 역병은 공동체의 제반 관계의 와해를 가져왔다. 제국의 욕망은 젊고, 나르시스적 자기 확신과 자만심에 찬 오이디푸스에게 투사된다.

공동체의 오염은 오이디푸스의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의 타부에서 비롯된다. 오이디푸스는 희생양으로 지목되고, 비난의 메커니즘에 따라 공동체에서 추방된다. 오이디푸스는 '이것은 무엇인가'→'그는 누구인가?'→'나는 누구인가?'라는 여러 단계의 텍스트 해석학을 거치면서 자기 반성적 성찰에 이른다.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은 사회질병 혹은 제국의 질병 인식에서부터 사회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해 너머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기표이다.

주제어: 『오이디푸스 왕』, 역병 플롯과 내러티브, 제국의 욕망, 연결성, 질병 상상계

1. 들어가는 말

초연결시대의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 공동체가 인적, 물적, 정보적으로 긴밀하게 엉켜 있는 '연결망'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냈다. 생태비평(eco-criticism)이라는 개념을 학계에 등단시킨 윌리엄 레커트(William Rueckert)는 「문학과 생태학」에서 "만물은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며, 오늘날 생태 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긴밀하게 연결된 전지구적 연결망의 입장을 제기하였다.[1] 더욱이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 너머 사물의 경계를 초월하고 융합한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이 실현되는 4차 산업혁명의 연결망적 현상들이 생태학, 정치경제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파에서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 공동체라는 새로운 제국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즉 연결망으로서의 제국 체제의 징후인 코로나 팬데믹은 생물학적 그리고 생태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 공동체의 작동원리에 변화와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인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늘 연결되어 존재하여 왔다. 원시연결사회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었고, 근대연결사회에서는 생산력 증대를 위해 인간 삶이 글로벌 물류망에 연결되었고, 초연결사회에서는 인간과 사물(things)이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원시연결사회에서부터 최근 초연결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은 연결성(connectivity)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병은 이러한 연결성의 맥락에서 고찰될 수 있다.

연결성의 측면에서 인간 진화는 감염병과 무관하지 않다. 패거리 혹은 무리를 형성하여 진화하여온 인간 특성상, "패거리는 감염, 전염병, 전쟁터, 파국과 더불어 증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

1) William Rueckert, "Literature and Ecology: An Experiment in Ecocriticism," *Glotfelty and Fromm*, 1996, p. 108.

은 무리이며, 무리는 감염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하며 변형된다고 말할 따름이다."[2]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non-human others 자연, 사물, 세균, 바이러스, 도구 포함) 존재도 제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배치체에서 예외일 수 없다. 바이러스 역시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연결성의 측면에서 제국의 정치사회적 현상에 포함된다. 패트릭 울프(Patrick Wolfe)가 "현대 전 지구적 담론의 핵심 요소의 하나는 제국주의가 탈영토화 되었다"[3]고 하였듯이, 제국의 현상으로서의 감염병은 네트워크 제국 논의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제국의 배치체에서 연결성의 속성상 탈영토화 되어 있다.

이 글은 연결성의 관점에서 제국의 작동원리와 팬데믹 작동원리를 연계한다. 제국(empire) 개념은 고대 로마의 임페리룸(imperium)에서 기원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4], 고대 델로스 동맹 체제에서 형성된 아테네 체제 역시 제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아테네에서 발발한 역병은 연결망으로서 제국의 작동원리 내에서 팬데믹이 되었고, 더 나아가 아테네 역병은 아테네 제국의 흥망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역병 이후 더 이상 아테네는 지중해권에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제국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기원전 431년 페리클레스(Pericles) 통치기의 아테네 제국에서 발발한 아테네 역병에서부터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감염병은 생물학적 질병이라는 인식 못지않게 사회질병 혹은 제국의 질병으로 인식되어왔다. 제국의 질병으로서 역병은 감

---

2)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London: The Athlone Press, 1988, pp. 295-6.

3) Patrick Wolfe, "The World of History and the World As History: Twentieth-century Theories of Imperialism," Prasenjit Duara, ed., *Decoloniality: Perspectives from Now and Then,* Routledge, 2004, p. 109.

4) 이삼성, 『제국』, 도서출판 소화, 2014, p. 25.

염의 속성상 공동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사회적 대응을 요구하였다. 공동체적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한 역병은 아테네 제국의 몰락에서 목도했듯이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글은 제국의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최초의 팬데믹 현상인 아테네 역병의 재현 양상을 고찰한다.

이 글은 '하나의 연결망으로서의 제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국의 현상 혹은 제국의 징후로서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오이디푸스 왕』(*Oedipus the King*)에 나타난 역병의 플롯(plot)과 내러티브(narrative)를 분석한다. 『오이디푸스 왕』은 생물학적 자연 질병이 아니라 연결망으로 그리고 제국의 현상으로 역병을 재현한 최초의 고전 비극이다.[5] 이 글은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 플롯과 역병 내러티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국의 욕망과 오이디푸스의 욕망을 교차하여, 제국의 징후로서 역병 현상을 정리하고 역병 담론을 체계화 한다.

2. 아테네 제국의 역병 인식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기원전 431년 아테네에 역병이 발생하였고, 투키디데스(Thucydides, BC 545-399)는 이 역병을 '아테네 역병'(plague of Athens)이라고 명명하였다. 아테네 제국 문명의 최고 전성기에 발발한 아테네 역병은 전쟁, 정치, 사회 구조, 건축물, 종교, 미술, 비극, 국제 관계, 철학, 신전 건설 등 당대의 사회적 상상계(the social imaginary)에 변화를 가져왔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History of the Peloponnesian*

5) 『오이디푸스 왕』 이전의 호머(Homer)의 『일리아드』(*Iliad*)를 비롯한 고전 서사시(Primary Epic)에서도 역병은 중요한 내러티브이고, 작품의 사회적 배경이고, 갈등 관계의 원인으로 묘사되었다.

*War)*에서 아테네 역병에 대한 역사 기술을 하였다. 투키디데스는 역병의 증상을 최초로 기록한 저술가이다.[6] 투키디데스는 "이 병이 재발할 경우에 증상을 보고 정확하게 장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나 자신도 이 병을 체험하고 또 많은 환자를 목격했으므로 이를 밝히고 싶다"라며, 역병 기술 의도를 밝힌다.[7]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단기전을 예상하고 공격보다 는 방어에 치중하였다. 페리클레스의 방어 전략으로 외곽의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안으로 들어왔고, 인구가 밀집한 상황에서 역병은 급속히 퍼져나갔다.[8] 아테네 역병은 밀집 공간의 공기 오염 때문에, "역병의 희생자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감염이 되어 타격을 입었다."[9]

반면, 펠로폰네소스 군대는 페리클레스의 방어 전략으로 아테네 안으로 침입하지 못해 역병을 피할 수 있었다. 아테네의 페리클레스와 투키디데스도 아테네 역병을 피하지 못하고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에 비해, 아테네와의 연결성이 차단된 스파르타 사람들은 역병으로 고통을 겪지 않았다. 이는 역병이 연결성의 산물임을 반증한다.

투키디데스는 역병이 어떻게 전파되고 진행되는 지를 보여주는 역 병 전파 동선을 제시한다. 역병 전파 동선은 인간을 둘러싼 중층적 사회관계의 구조를 드러낸다. 역병의 전파와 창궐에 따라서

---

6) James Longrigge, "The Great Plague of Athens," *History of Science,* 18 (3), 209-225 p. 221.

7) Thucydide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BK II. (The plague of Athens. 2.47-2.54)

8) 문혜경,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 아테네 역병과 그 충격」, 『대구사학』, 제 87호, p. 188.

9) Diodorus Siculus (Diodorus of Sicily), *World History: Books 11-12.* 37. 1: *Greek History, 480-431 BC—the Alternative Version,* Trans. Peter Gree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10, p. 45.

개인, 가족, 신전, 국가 공동체, 제국 체제가 해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마이클 스위어츠(Michiel Sweerts)의 〈고대 도시의 역병〉(*Plague in an Ancient City*)에서도 이와 유사한 역병의 징후와 공동체 시스템의 해체 양상이 묘사되어 있다. 투키디데스를 비롯한 아테네 역병 관련 기술과 묘사는 문명 기제들이 효력이 없음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투키디데스의 역병 기술에는 아테네 제국이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법, 자유, 관용, 명예,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은 없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Antigone*)에서처럼 "그 불문율들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 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라며 죽음을 불사하고 시신 매장을 통해 지키려고 했던 도덕 개념은 없다.[10]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수사학』(*Rhetoric*)에서 언급한 '명문화되지 않은 자연의 법'은 역병의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았고,[11] "역병으로 인해 아테네인의 용기와 미덕이 파괴 되었다."[12] 아테네 역병으로 인해 제국의 위대한 이상은 좌절되고, 민주주의를 비롯한 아테네 제국의 영광과 명예는 실추하고, 고대 아테네 제국의 문화와 가치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결국 아테네 역병은 제국의 해체로 귀결된다.

투키디데스는 역병의 퇴치와 극복에 대해 기록을 안 남기지 않았다. 당시 역병의 치료제와 특효약이 없었기 때문에 투키디데스의 역사 기술은 현상과 징후의 기록에 한정되었다. 반면, 비극작가들은 사회적 상상계의 차원에서 역병의 원인과 극복 그리고 대안을 재현하였다.

---

10) Sophocles, *Antigone*, L. 456-7.

11) Aristotle, *Rhetoric*, L. 1373b.

12) J. L. Creed, "Moral Values in the Age of Thucydides," *Classical Quarterly,* vol. 23, no. 2, 1973, pp. 213-31.

아테네 역병은 비극작가들의 예술의 언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 히 역병 절정기에 디오니소스 극장의 치료적 역할이 부각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병에 대한 예술의 치료적 역할을 타진할 수 있다. 이 시기 디오니소스 극장은 "질병 상상계(disease imagery)의 우세"를 보여주었다.[13] 그 중에서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역병에 대한 광범위한 설정과 텍스트상의 상세 사항으로 구성되고 전개된다.

역병 창궐기에 공연된 비극에는 실제 아테네 역병과 은유적 테베 역병의 고통에 대한 묘사가 많다. "현시(presentation)가 있으면 반드시 재현(representation)이 있듯이,"[14]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Euripides) 등 기원전 5세기 비극작가들은 다양한 재현 방식으로 역병과 질병을 스토리의 일부, 아곤(agon), 혹은 무대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에서 테베의 역병을 통해 아테네 역병을 재현하였다. 『오이디푸스 왕』에는 고대 제국의 팬데믹 인식, 팬데믹 대처 방안, 그리고 대안 제시 등 최초의 팬데믹 담론이 나타나 있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에서 역병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 역병의 원인, 해결 방법, 역병 퇴치 방법, 그리고 역병 이후를 재현하고, 역병을 통한 인간 존재의 위대함이라는 비극적 비전을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Poetics)*에서 비극의 효용성을 연민(pity)과 공포(fear)를 통한 정화(katharsis)라고 정의한다. 비극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교육의 장이며 사회 정치적 맥락에

---

13) Robin Mitchell-Boyask, "The art of medicine: Plague and theatre in ancient Athens," *The Lancet,* p. 374. 『오이디푸스 왕』이 직간접적으로 아테네 역병을 재현했다면, 에우리피데스(Euripides)의 『히폴리토스』(*Hippolytos*)와 소포클레스의 『트라키아의 여인들』(*The Trachiniae*)은 사회적 역병에 대한 문학적 반응으로 구성되었다.

14) 홍은숙,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나타난 도덕 개념과 법적 정의」, 『영 미어문학』, 106, 2013, p. 36.

서 고려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하더라고, 비극은 전쟁과 역병에 짓눌린 사람들의 고통을 정화시켜주는 치료제로 이해할 수 있다. 디오니소스 극장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과도한 욕망과 자부심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전쟁의 상처와 역병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적합한 카타르시스(정화, 치료)의 장이었다. 디오니소스 극장은 놀이 공간, 치유 공간, 교육 공간, 정치 공간으로서 기원전 5세기 극장문화를 대표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역병이 창궐하자,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Sanctuary of Aesculapius)이 디오니소스 극장(Theater of Dionysos) 옆에 건설되었다. 디오니소스 극장이 사회질병에 대한 치료제 역할을 했다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은 자연질병에 대한 치료제 역할을 했다. "비극(연극, 재현)의 치료적 힘을 믿는 그리스적 믿음을 고려한다면,"[15] 두 신전의 장소 배치는 역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테네 역병으로 육체적 정화(건강)와 정신적 정화가 동일 지평에서 고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원전 419/418년에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 오스의 신전과 디오니소스 극장이 나란히 있는 것은 역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표상한다. 자연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상하기 이전에 사회적 그리고 공동체적 질병에 대한 인식이 우선했던 고대 그리스 사회는 디오니소스 극장을 먼저 건립했다. 역병이 창궐하자 이전의 모든 문명적 장치들이 소용없게 되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상한다. 이후 의학과 의술 그리고 과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디오니소스 극장 옆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지어진다. 아크로폴리스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세워진 것은 기존

15) Robin Mitchell-Boyask, "The art of medicine: Plague and theatre in ancient Athens," *The Lancet*, vol. 373, no. 9601, 2009, p. 374.

의 사회 시스템이 와해되고 보강 혹은 대체되어야 하는 사회적 배경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3. 역병 플롯과 내러티브

1) 제국의 욕망과 오이디푸스의 욕망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아테네 역병이 발발한 후 2년에서 6년 사이인 429년에서 425년경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극의 상황을 소개하는 프롤로그(prologue)는 테베의 궁전 앞에서 오이디푸스를 향한 테베 시민들의 탄식으로 시작한다.

> 오이디푸스. 내 자식들이여! [...] 온 도시가 향을 태우는 연기와 구원을 비는 기도와 죽은 자들을 위한 곡소리로 가득하구나.
>
> Oedipus. My sons! [...] The city is filled with the smoke of burning incense, with hymns to the healing god, with laments for the dead.
>
> 사제. 왕께서도 보셨다시피, 이 도시는 모진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고, 죽음의 노한 물결에 눌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테베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에도, 목장의 소떼에게도, 여인들의 불모의 산고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불을 뿜는 신이신 지독한 역병이 갑자기 도시를 휩쓸어, 도시는 황폐해졌고, 테베의 집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하데스는 눈물과 탄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나신 오이디푸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탄원자로서 그대에게 애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의 방도를 찾아주십시오!

> Priest. You can see for yourself–the city is like a ship rolling dangerously; it has lost the power to right itself and raise its head up out of the waves of death. Thebes is dying. There is a blight on the corps of the land, on the ranging herds of cattle, on the still-born labor of our women. The fever-god swoops down on us, hateful plague, he hounds the city and empties the houses of Thebes. The black god of death is made rich with wailing and funeral laments. [...] And now, Oedipus, power to whom all men turn, we beg you, all of us here, in supplication–find some relief for us![16]

테베 시민들은 오이디푸스에게 역병 퇴치를 간청하고, 사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라며 정치 리더십을 강조한다. 테베 공동체는 오이디푸스에게 역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과업을 부과하고, 오이디푸스는 기꺼이 그리고 자신 만만하게 의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답한다. 오이디푸스의 해결책은 델포이에서 신탁을 구하는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정의내릴 수 없고 그리고 증상과 증후만을 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영역 너머 신의 영역에서 역병의 원인을 찾는다. 이름을 명명하면 그 질병은 치유된 것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알면 거의 치유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역병이라는 미지의 불확실성의 영역에 과감히 도전한다.[17]

---

16) Sophocles, *Oedipus the King*, Trans. Bernard M. W. Knox, Washington Square Press, 1971, pp. 2-3. 이후 이 작품의 인용은 괄호 속에 행(Line) 수 혹은 페이지 수만 밝힘.

17) 고대 아테네의 역병 기술은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호머의 『일리아드 1권』은 역병과 아킬레스의 분노에 관한 이야기이다. 1권에 아폴로 신이 역병을 불러오는 장면이 있다. 1권은 아폴론이 역병을 불러온 이유, 역병을 멈추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아폴로 신이 노했기 때문에 역병이 일어났고, 그리스 연합군은 역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 『오이디푸스

소포클레스는 테베에 드리워진 역병의 해결책을 정치적 리더십에서 찾는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의 아테네 역병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역병의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아테네 제국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믿었던 소포클레스에게 있어서, 정치 리더십은 역병을 해결하는 열쇠였다.

『오이디푸스 왕』에서 역병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은 영웅적 정치 리더십의 상징인 오이디푸스를 찾아간다. 오이디푸스는 통치자로서 그리고 영웅적 지도자로서 역병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받아들인다. 오이디푸스는 신탁과 예언자를 통해 역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영웅적 행동과 결단력으로 역병을 퇴치하려는 의지가 충만하다.

신탁이 제시한 원인은 '더러움'(오염, 미아스마, miasma)에 있다. 신탁은 더러움을 정화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의 치료책은 공중 보건적 정화가 아니라 정치적 정화였다. 오이디푸스에게서 자연질병으로서의 역병에 대한 인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오이디푸스는 역병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았고 해결책도 정치에서 찾으려고 한다.

> 크레온. 아폴로 신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나라를 더럽히는 것(미아스마)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치유할 수 없을 때 까지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
> Creon. He (the god Apollo) ordered us, in clear terms, to drive out the thing(miasma) that defiles this land, which we, he says, have fed and cherished. We must not let it grow so far that it is beyond cure. (6)

왕』에서처럼 크레온이 아폴로 신전(델포이 신탁)을 찾아간다. Homer, *Iliad,* BK 1.

> 크레온. 추방, 그렇지 않으면 피는 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역병의 폭풍우를 가져온 살인에 대해 속죄해야합니다.
>
> Creon. Banishment-or repaying blood with blood. We must atone for a murder which brings this plague storm on the city. (7)
>
> 크레온. 그 분(라이오스)은 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이든, 아폴로 신께서는 그 분을 살해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
> Creon. It is to his death Apollo's command clearly refers. We must punish those who killed him-whoever they may be. (7)

백신이나 특효약과 같은 역병의 치료제가 없기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역병을 신이 보낸 사회질병으로 인식한 것은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오이디푸스 왕』의 첫 번째 에피소드(episode)는 역병의 원인을 찾는데 있다.[18] 무대의 막이 오르기 전에 이미 오이디푸스의 명령은 받은 크레온(Creon)은 역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델포이 신탁을 향했고, 막이 오르면서 오이디푸스를 비롯한 테베 시민들은 델포이 신탁을 기다리면 장면이 연출된다.

델포이 신탁이 당도하자마자 오이디푸스는 '원인제거=치료'라는 정치적 해결을 제시한다. 신탁에 따라, 테베 공동체는 테베를 오염시킨 주범을 찾아서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는 책무를 오이디푸스에게 맡긴다. 이제부터 논의는 역병이 아니라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행동, 오이디푸스의 자기발견, 오이디푸스가 제시하는 비극적 비전

18) 에피소디온(episodion)은 본격적인 대사부분으로 배우와 배우 혹은 배우와 코러스의 대화 부분이다. 『오이디푸스 왕』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오이디푸스의 자신만만한 의지에 근거한 포고령 → 테이레시아스의 폭로 → 오이디푸스의 반발과 억측으로 진행된다.

으로 플롯상의 획기적 전환이 발생한다. 파국에 이르러 오이디푸스는 오염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발견을 하고, 스스로를 공동체에게 제거하는 선택을 한다.

그렇다면, 논의는 테베 공동체를 오염시킨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결함'이 무엇인가에 귀결된다. 즉 오이디푸스가 오염의 원인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테베 공동체의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어떻게 투영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역병의 원인과 제거는 사회의 오염과 사회의 정화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고, 오이디푸스의 개인적 욕망은 제국의 공동체적 욕망과 연계된다.

오이디푸스의 잘못은 젊은 혈기로 자제할 줄 몰랐던 젊은이의 미숙함에 있다. 세 길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이디푸스와 라이오스(Laius)는 결투를 벌인다. 이들의 결투는 청년의 패기와 노인의 지혜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린 고대 아테네 제국의 단면을 재현한 장면이다. 『오이디푸스 왕』의 무대 배경인 테베는 욕망에 부풀어 오른 젊은 오이디푸스들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의 아테네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이 넘치는 사회였다. 델로스 동맹체제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아테네는 제국의 교류와 번영으로 대내외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했고,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감과 자신감이 넘치는 자제할 줄 모르는 제국이었다. 제국의 번영, 제국의 전쟁, 제국의 욕망이 오이디푸스의 젊고, 자신감 넘치고, 혈기 왕성한, 과한 자부심(too much pride), 나르시스적 자기 확신(휴브리스 hubris)에 투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는 아테네 최고 전성기의 아테네의 이상이었지만, 그의 용기와 열정과 지성은 비극적 구조에 매몰되고 만다. 비극적 구조에서 영웅의 동력은 비극적 몰락으로 귀결된다.

> *Oedipus tyrannos* was the Athenian ideal of the days of the city's greatness, but his courage, energy, and intelligence were set in a tragic framework where their heroic impetus brought about his fall.[19]

2) 스핑크스의 질문과 자기 반성적 성찰

그리스 신화에서 스핑크스(Sphinx)는 자연 재난을 상징하는 존재 라면, 『오이디푸스 왕』에서 스핑크스는 역병을 상징한다. 스핑크스는 "공동체를 공포에 떨게 하면서 제물들을 정기적인 공물로 바칠 것을 요구한다."[20] 오이디푸스는 가뭄과 역병과 기근을 일으키는 신적인 힘을 상징하는 스핑크스를 해결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테베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늙은 라이오스는 스핑크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스핑크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델포이 신전을 향하는 길에 유능한 젊은이에게 살해당한다. 반면 오이디푸스는 지적 능력과 패기로 스핑크스라는 자연 재앙을 물리쳤지만, 오이디푸스는 부풀어 올라 겸손을 모르는 인간이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 재난과 역병을 상징하는 스핑크스는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겸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자기 반성적 성찰을 촉구하는 매개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은 제국의 번영과 오이디푸스의 과도한 자부심(풍부한 지식과 성취욕)과 같은 욕망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스핑크스의 과제는 여러 단계의 텍스트 해석학을 거친다. '이것은 무엇인가'(4) → '그는 누구인가?'(2) → '나는 누구인가?'(3)에

---

19) Bernard Knox, *The Heroic Temper: Studies in Sophoclean Tragedy*, p. 114.

20)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p. 133.

서처럼, 오염원을 찾는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러티브상의 변화가 초래된다. '라이오스의 시해자가 누구인가?'에서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시해자인가?'에 주제의 변환이 이루어진다. 스핑크스의 질문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 물음, 즉 자기 반성적 성찰에의 요구로 이어진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시해자인가'라는 질문은 자기 인식과 자기 발견에 대한 화두이며,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시칠리아 원정과 같은 과도한 욕망의 열기에 부풀어 오른 제국의 욕망을 매몰된 아테네의 청년들을 겨냥한 화두이다.

스핑크스의 질문은 인간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인간은 4이면서 2이고 때로는 3이기도 하다. 스핑크스의 질문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간'에서 찾는다. 스핑크스 신화는 인간적 성찰을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대표적 자기 반성적 성찰의 신화적 내러티브이다. 『오이디푸스 왕』에서처럼, 스핑크스의 질문에 통과한 사람만이 영웅이며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반성적 성찰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의 최고 덕목으로 제시된다.

『오이디푸스 왕』의 전개와 발단 부분에서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질문과 공동체의 오염원의 제거를 통해 역병을 퇴치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하다. 이미 스핑크스의 문제를 해결해서 왕위에 오른 오이디푸스는 이번에도 역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기 확신이 있었고, 이오카스테(Jocasta)의 만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라이오스의 시해자를 찾는 일에 매몰된다.

하지만 역병은 시해자의 발견이 아니라 자기 발견에서 해결된다. 오이디푸스가 자기발견을 향해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볼 때 테베에서 역병은 사라진다.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질문을 해결했을 때, 테베에 역병이 사라지고, 스핑크스는 절벽으로 몸을 던진다. 그리고 다음 번 재앙이 닥쳤을 때,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오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공동체를 떠난다. 『오이디푸스 왕』은 오이디푸스의 자기 반성적 성찰 이후 공동 체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평화가 다시 찾아오는 플롯으로 완성된다.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전염병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역병 발생 → 스핑크스의 질문(문제제기) → 인간에 대한 반성적 성찰 → 역병 퇴치와 공동체의 평화 → 역병 발생 → 델포이 신탁(오염된 것을 제거하라) → 인간에 대한 반성적 성찰 → 역병 퇴치와 공동체의 평화.

오이디푸스가 역병퇴치와 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오이디푸스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오이디푸스를 영웅적 인물로 부각시킨다. 오이디푸스의 자기발견 과정은 자기 반성적 성찰이라는 극적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이디푸스는 약속을 지키며 법률을 준수하는 통치자로서 더 이상 테베의 더러움이 아니라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는 비극적 영웅(tragic hero)이 된다. 오이디푸스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발휘하여, 불편한 진실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영웅적 인물이 된다. 『오이디푸스 왕』은 오이디푸스의 자기 발견을 통해 제국의 욕망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헛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제국'과 '옳은 욕망을 새로이 생성해야하는 제국'이라는 측면에서 제국의 욕망은 사라질 수도 있고, 오이디푸스처럼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역병과 전쟁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한 아테네인들이 갈망했던 통치자는 결국 정의로운 새로운 욕망을 생성한 오이디푸스이다. 디오니소스 극장이 전쟁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해체된 아테네를 재건하고 아테네 사회를 건강한 시민 공동체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임을 보여준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Oedipus at Colonus*)에서 테베의 오염 덩어리인 오이디푸스는 아테네에서는 다시 신 성한 보물이 된다. 실제 아테네 역병은 고대 그리스 제국

의 해체를 가져왔지만,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새로운 사회를 모색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 토템과 타부의 내러티브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카오스적 사회 구조는 우라노스(Uranus) → 크로노스(Cronos) → 제우스(Zeus)의 반복되는 살부(殺父)라는 파괴적 행동으로 형성되고 재편되면서 코스모스(Cosmos)를 지향한다. 지속적인 새로운 체제 형성을 가능하게 한 살부(친부살해)는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공동체를 오염시킨 금기(타부, taboo)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금기시된 행위로부터 새로운 사회조직, 도덕적 제약, 제도 등이 비롯되었다'고 본다.[21] 이러한 형성과 해체 그리고 새로운 형성이라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토템과 타부 개념이 발생한다.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는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으로 아버지의 자리 즉 왕위에 오른 제국적 욕망 충족의 만족감은 잠시였다. 오이디푸스는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이라는 금기가 가져온 "도덕적 반작용으로 고통"을 겪는다.[22]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를 제거하라"(7) 그리고 "도시를 더럽힌 자를 도시에서 추방하라"(7)는 델포이 신탁에 따라, 오이디푸스는 죽은 라이오스를 다시 살려내려고 한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를 찾아내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다른 체제를 지향한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친

21) Sigmund Freud, *Totem and Taboo: Some Points of Agreement between the Mental Lives of Savages and Neurotics*, Trans. James Strachey, 1952, p. 215.
22) 같은 책, p. 217.

부살해에 이어 근친상간이라는 또 다른 타부를 저지른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이라는 타부 때문에 희생양(죄 지은 자)으로 지목되고, 공동체의 시스템은 해체를 강요받고, 다른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테베의 시민들은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오이디푸스로 하여금 라이오스를 시해한 자를 찾게 하고, 살해된 죽은 아버지 라이오스를 살려내서, 새로운 체제를 기대한다. 다시 무대의 중심에 오른 살아 돌아온 죽은 아버지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의 타부에 의해 토템(totem)이 된다. 토템은 오이디푸스에게 살해당한 라이오스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다른 사회 체제, 새로운 거버넌스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오이디푸스의 타부는 토템을 불러내고, 토템은 새로운 체제와 정치 리더십의 기표이다. 『오이디푸스 왕』에서 새로운 체제의 기표인 토템은 역병을 통해 생성되고, 역병은 오이디푸스의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이라는 타부로 인해 발생하였다. 그리고 역병은 타부와 새로운 토템으로 인해 사라진다.

오이디푸스에서 보듯이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이라는 타부는 공동체를 더럽힌 오염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생성을 가져왔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사회는 토템에 저항하는 금기 즉 타부에서 시작되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오이디푸스의 더러운 행동 즉 타부에서부터 새로운 체제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이디푸스 왕』은 이러한 토템과 타부의 지속적 반복으로 새로운 사회 체제가 형성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재현한다.

한 시대의 가치와 신념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신념의 도래를 위해 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핑크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왕위에 오른 오이디푸스는 금기시된 행동으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빠진다. 『오이디푸스 왕』의 역병 플롯의 진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토템과 타부에 나타난 역병 플롯은 제국의 욕망, 지식이 충만한 개인의 과도한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이

와 이행을 중층적으로 포괄한다.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은 새로운 체제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사라지고 다시 생성된다. 오이디푸스 삼각형 콤플렉스 혹은 프로이트의 토템과 타부의 관점에서 역병 플롯이 고려될 수 있다. 기존의 가치와 신념이 시험대에 오르고, 재평가되고,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와 신념이 부상한다. 새로운 가치와 신념은 토템이 되고, 토템은 이어지는 타부로 해체의 위기에 직면한다. 터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금기시된 행동으로 인해 오이디푸스는 자기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오이디푸스의 자기발견으로 공동체에 더러움은 사라지고, 테베에 새로운 질서가 부상한다. 그리고 새 질서는 토템이 된다.『오이디푸스 왕』은 제 2 혹은 제 3의 오이디푸스들의 타부로 인해 해체의 위기 즉 또 다른 역병의 가능성 또한 제기한다.

4) 비난의 메커니즘과 희생양

연결성의 속성으로 인해 역병은 공동체의 제반 관계의 취약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제국의 와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오이디푸스 왕』에서처럼 크레온과 오이디푸스는 왕위를 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모든 생성이 중단된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자기 반성적 성찰보다는 사회 전체 혹은 손쉬운 타인에게 역병의 원인을 부가하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부터 사회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약한 고리 들 중에서 희생양이 지목되고, 희생양은 '죄지은 자'가 되어 불명예를 덮어쓴다. 결국 '비난의 메커니즘'은 제국의 해체를 가속화한다.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 플롯은 비난의 메커니즘으로 전개된다. 고대 그리스 신화 체제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님 예언가

테이레시아스(Tiresias)는 "당신은 이 땅을 오염시키는 불경한 자 [...]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의 시해자가 바로 당신입니다"(23) 라며 오이디푸스를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신탁을 전달한 크레온도 오이디푸스를 지목한다. "크레온과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에게 비난을 돌리는데 성공한다."[23] 그리고 목자와 사자 등 여러 목격자들은 오이디푸스를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이라는 공동체의 오염원으로 지목한다. 테베에 역병이 창궐하는 동안 모든 비난은 오염을 유발한 자, 공동체의 타부를 행한 자, 즉 희생양 오이디푸스에게 쏟아진다.

>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은 공공연하게 개인과 집단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너무나 무차별화적인 이 범죄의 영향은 사회 전체에 전염된다. 소포클레스의 이 텍스트는, 무차별화 된다는 것은 바로 페스트에 감염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4]

감염과 연결성의 속성상 역병이 무차별적이고 집단적이기 때문에, 희생양을 향한 비난의 메커니즘도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이다. 역병이 퍼져 나가듯이 모든 비난이 오이디푸스를 향해 전개될 때, 오이디푸스는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나는 내가 저지른 행위 이상으로 이런 행위들로 고통"을 받는다.[25] 오이디푸스는 소포클레스의 다른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영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희생자이고, 행동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받았다.[26]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 플롯은 비난의 메커니즘으로 '희 생양 제의'로 진행된다. 막이 오르면서 원인 모를 역병이 테베

---

23)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7, p. 121.
24) 르네 지라르, 『희생양』, 민음사, 2007, p. 45.
25) Sophocles, *Oedipus at Colonus*, p. 99.
26) Bernard M. W. Knox, *The Heroic Temper: Studies in Sophoclean Tragedy*, U of California P, 1983, p. 5.

를 뒤덮는 상황 설정에서부터 희생양 내러티브는 시작된다. 오이디푸스는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이라는 공동체의 금기를 위반했고, 타부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오이디푸스는 오염이라는 역병을 가져온 자가된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오염을 해결할 희생양이 된다.

르네 지라르(Rene Girard)의『희생양』에 정리된 희생양으로서의 오이디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발이 퉁퉁 부은 자라는 이름의 "오이디푸스는 절름발이," 불구의 몸이다. "오이디푸스는 업둥이이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에서도 코린토스에서도 그리고 죽음 맞이하는 콜로노스에서도 이방인이고 방랑자이다. 오이디푸스가 가는 모든 곳은 그에게 낯선 곳이다. 이방인 오이디푸스는 집단폭력에 노출된다. 비록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난제를 풀고 테베의 왕위라는 잔치에 초대 받았지만, "잔치는 집단폭력을 가한다."[27] 결국 오이디푸스는 추방이라는 집단폭력을 당한다. 오이디푸스는 아무에게도 역병을 옮기지 않았지만, 희생양으로 선택된 오이디푸스는 비극적 몰락하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된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포함한 고전극과 고대 신화에 나타난 재난은 희생양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희생양 플롯은 분노와 재앙을 일으킨 대상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재난의 공포가 폭력으로 번지고, 폭력의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공포를 해체하고 안전을 되찾는 구조다.

> 그리하여 사나운 아레스
> 지금은 청동 방패도 들지 않고,
> 비명 소리 속에서 다가와 나를 불태우는
>
> And grant that Ares whose hot breath I feel,

27) 르네 지라르,『희생양』, pp. 45-6.

Though without targe or steel
He stalks, whose voice is as the battle shout, (L. 190-193)

비난의 메커니즘은 전쟁의 신 아레스(Ares)에게도 전가된다. 아레스는 테베 전염병 확산과 관련 없지만, 아레스에 대한 언급으로 보건데, 당시 아테네인들은 역병을 전쟁의 징후로 인식하였고, 실제로 아테네 역병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발발했기 때문에 전쟁의 신에게까지 비난이 이어진다.

지라르에 따르면 희생양을 생성하는 과정은 교묘한 위장과 의도적 오해를 수반한다. 희생양 생성 과정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진행된다. 희생양을 만드는 과정은 재난에 대한 개인적 공포를 집단적 의식과 행동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편견, 혐오, 금기, 공포는 오이디푸스를 공동체에서 추방한다. 테베의 시민들은 오이디푸스 추방을 통해 불안과 분노를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 왕』에서 추방된 오이디푸스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이 신성한 곳이 되어, 신성과 신비의 인물로 기억된다.

안티고네. 이곳으로 말하자면, 명백히 신성한 곳입니다.

Antigone. As for this place, it is clearly a holy one. (L.15)

4. 나오며

투키디데스가 '아테네 역병'을 명명한 이후, 감염병은 전지구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연결성을 표방하는 제국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가능성 등 사회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 고대

아테네 제국 체제에서부터 역병은 개인의 자연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소포클레스의『오이디푸스 왕』은 연결성을 표방하는 제국 체제의 작은 구역에서 시작된 역병이 팬데믹이 되는 과정과 해결 과정을 재현하였다. 인류 진화는 의학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더불어 진행되지만, 과학과 의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고대 체제에서 역병은 불가항력의 영역이었고, 인간 삶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이러한 아테네 제국의 인식으로 인해 역병은 미지의 혹은 불치의 페스트(pest)로 통용되었다.

프랭크 스노든(Frank M. Sonwden)은『전염병과 사회』*(Epidemics and Society)*에서 전염병을 사회적 현상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감염병에 휩싸인 사회는『오이디푸스 왕』에서처럼 비난의 메커니즘으로 사회의 금기(더러움, 오염)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희생양을 지목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취약성과 약한 고리를 드러내고,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염병을 통해 사회 구조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은 사회의 기표(signifer)이다.[28]『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은 감염병이 사회 전반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써 극복되어야 할 공동체의 과제임을 반증한다.

아테네 역병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델로스 동맹의 교류, 제국의 번영의 산물이고,『오이디푸스 왕』의 테베 역병은 사회적 욕망의 오염의 산물이었다. 제국의 욕망과 과한 자부심의 오이디푸스의 욕망이 교차하면서 오염원을 찾는 과정이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의 내러티브로 변한다.『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역병 상상계는 채워도 끝이 없는 제국의 욕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을 추구하는 욕망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

28) Frank M. Snowden, *Epidemics and Society: From the Black Death to the Present,* Yale UP, 2019, p. 2.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Sophocles. *Antigone*. Ed. M. Griffith. New York: Cambridge UP, 1999.
_____. *Oedipus at Colonus*. Trans. Paul Roche. A Montor Classic, 1958.
_____. *Oedipus the King*. Trans. Bernard M. W. Knox, Washington Square Press, 1971.

2. 논문

문혜경.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 아테네 역병과 그 충격」. 『대구사학』 87. 2007. pp. 181–210.
홍은숙.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나타난 도덕 개념과 법적 정의」. 『영미어문학』 106. 2013. pp. 35–52.
Creed, J. L. "Moral Values in the Age of Thucydides." *Classical Quarterly*. vol. 23, no. 2. 1973. pp. 213–231.
Longrigge, James. "The Great Plague of Athens." *History of Science*. vol. 18, no. 3. 1980. pp. 209–225.
Mitchell–Boyask, Robin. "The art of medicine: Plague and theatre in ancient Athens." *The Lancet*. vol. 373, no. 9601. 2009. pp. 374–375.
Rueckert, William. "Literature and Ecology: An Experiment in Ecocriticism." *Glotfelty and Fromm*. 1996. pp. 105–123.

3. 단행본

이삼성. 『제국』. 도서출판 소화, 2014.
지라르, 르네. 『희생양』, 민음사, 2007.
_____.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7.
Aristotle. *Rhetoric*. Trans. W. Rhys Robert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54.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London: The Athlone Press, 1988.

Freud, Sigmund. *Totem and Taboo: Some Points of Agreement between the Mental Lives of Savages and Neurotics*.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Norton, 1952.

Homer. *Iliad*. London: Oxford UP, 1998.

Knox, Bernard. *The Heroic Temper: Studies in Sophoclean Tragedy*. U of California P, 1983.

Diodorus Siculus (Diodorus of Sicily). *World History (The Library of History) Books 11–12. 37. 1: Greek History, 480–431 BC—the Alternative Version*. Trans. Peter Green. U of Texas P, 2010.

Snowden, Frank M. *Epidemics and Society: From the Black Death to the Present*. Yale UP, 2019.

Wolfe, Patrick. "The World of History and the World As History: Twentieth– century Theories of Imperialism," Prasenjit Duara, ed., *Decoloniality: Perspectives from Now and Then*. Routledge, 2004.

(투고일: 2021. 4. 30 심사완료일: 2021. 6. 20 게재확정일: 2021. 6. 22)

홍은숙
소 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주 소: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전자우편: eshong@dongguk.ac.kr

[Abstract]

Connectivity and Pandemic in *Oedipus the King*: Plot and Narrative of Plague

Hong, Eun-sook

This paper analyzes the plot and narratives of Sophocles' *Oedipus the king* as the phenomenon of empir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empire as a network and connectivity. The plague of Athens during the Peloponnesian War affected the language of Greek tragedians. The Theatre of Dionysus represented 'the disease imaginary' and *Oedipus the King* is developed with the setting and details of the plague. The plot and narratives of *Oedipus the King* follows the four steps; 1) crossing between the desire of Empire and the desire of Oedipus 2) 'Riddle of the Sphinx' and self-reflection 3) the narratives of taboo and totem 4) the defense mechanism and scapegoat. As Aristotle indicated that the effect of Greek Tragedy is katharsis through pity and fear, the remedy in *Oedipus the King* is also katharsis, not biological but sociopolitical katharsis. The desire of the Athenian Empire is projected on young, narcissistic Oedipus who has too much pride and hubris. Oedipus reaches a state of true self-reflection going through the textual hermeneutics; what is it? → who is he → who am I?

Key Words: *Oedipus the King*, Plot and Narrative of Plague, Desire of Empire, Connectivity, Disease Imaginary